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동국발전 불교중흥’ 성취, 진력 다하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동국대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를 기록했고, 대내적으로는 모든 단과대학, 대학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목표로 동분서주하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있다.

돈관 스님은 ‘소통형 리더’다. 이사장 취임 직후 돈관 스님은 전국 각지의 캠퍼스, 병원, 학교 기관과 산하 학교를 다니며 소통했다. 심지어는 전기 안전 관리,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지하공간까지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 30년 동안 기계실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30년을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사장스님이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취임식을 대신해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찾아가는 취임식’을 한 결과는 기관별 소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니 기관별로 소통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동국’이라는 이름의 원팀이 된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잡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립학교 정체성을 바로 세운 결과물 중 하나가 전 단과대학, 대학원 등에 불교동아리를 창립한 것이다. 이들을 통합한 ‘불교학생연합’이 발족했다. 이전까지 동국대 불교동아리 회원이 2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돈관 스님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했다.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학부생이 1만4000명, 대학원생 4000명이고, WISE캠퍼스가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2000명입니다. 총 2만8000명이 동국대의 재학생인데 올해 초 학내 불교동아리 인원을 파악해 보니 200명 정도 되더군요.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80명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중심 도량이 돼야 한다.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설립을 시작했을 때 ‘두 달만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와 걱정도 있었지만, 서원을 세워 시작하니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부터 5월 11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까지 총 14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고, 이는 일반대학원, 듀이카로도 이어졌다.



돈관 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캠퍼스에 15채, WISE캠퍼스 6채, 듀이카에 1채, LA캠퍼스에 1채, 현재 23채의 큰 도량이 지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등회 제등행렬에 동국대 청년불자 2000명이 연등의 의미를 나누며 행렬을 장엄했습니다. 최근 학교 곳곳에서 스님들에게 합장인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사장으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지어진 23채의 도량이 잘 유지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 화두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대의 전법 역량 결집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 지난 9월 24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영캠프’였다. 이날 2500여 학생들은 수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돈관 스님은 ‘영캠프’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번 영캠프는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족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주도했는데 이를 통해 ‘힙한 불교, 젊은 불교’의 이미지를 구현해냈습니다. 무엇보다 25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오계를 수지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큽니다. 현시대 흐름에 맞춘 한글 칠정례를 올리고, 2500여 명의 청년들이 계를 받아 지니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으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죠.”

이 같은 전법 역량 결집의 원동력은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원력으로 2021년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활동에 있다. 이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원력에서 비롯됐습니다.

‘3천 대학생 불자 양성’ 발원
23개 불교동아리 창립 견인해
영캠프 통해 2500명 수계받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신설해
사찰-재학생 연결 장학 신기원
“등록금, 취업 걱정 없게 할 것”

“‘제2 건학’의 기치를 세우고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중흥이 동국발전에서 시작되고 동국의 발전이 불교중흥의 초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건학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 건학’을 선언하고 3년 동안 이뤄져 온 건학위원회의 활동은 동국대 전반을 변화시켰습니다.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이루기 위해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제도를 신설했으며, 처음으로 교내 취업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신설된 장학제도 중 눈길을 끈 것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이다.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다. 1개 사찰마다 연간 10명의 지역 인재(동국대 재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불교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포교와 장학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로 시작해 지난 10월 2일 남해 망운사까지 총 84회의 장학금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장학생 이외에 추가로 총1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6~7월에는 동국대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 회원에게 일일이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는 월정사, 통도사 등 교구본사부터 조계사, 봉은사, 흥천사, 수원사, 원법사, 칠장사 등 지역 사찰들까지 전국에서 동참했습니다. 특히, 8월 퇴임을 하면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서광 스님도 제자들을 위해 장학기금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에 쾌척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죠.”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시작된 ‘JOB & CAREER FESTIVAL’ 취업박람회도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JOB & CAREER FESTIVAL’ 취업박람회는 2022년 처음 시작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자승 대종사가 발원한 ‘취업 걱정 없는 대학’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첫 해에만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공기업, 스타트업, 불교기관 및 단체 등 다수의 업체가 참가했고, 올해에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총 123개 기업이 참가했다.

“우리 동국대의 ‘JOB & CAREER FESTIVAL’은 학생의 취업을 위해 모든 동국가족이 동참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동국대만의 대표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말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을 통한 불법홍포에 여념이 없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한 돈관 스님은 ‘동국발전 불교중흥’의 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뜻을 힘줘 말했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동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졸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자승 대종사는 이를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원력으로 내보이신 것입니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화두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모든 불사들이 원만히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계 언론들도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라는 불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희 가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